



I. 일반개황

면적	9,561천 km ²	G D P	26,274억 달러(2006)
인구	13.1억 명(2006)	1 인 당 G D P	1,989달러(2006)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 화 단 위	Yuan(RMB)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외교	환 율 (달 러 당)	7.97/USD(2006)

- 중국은 한족(93%)을 포함한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의 천연자원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덩샤오핑(鄧小平)의 우선 발전론(先富論)의 기치 아래 개혁개방을 동부 연해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낳았음. 이에 따라 균형발전론(共富論)으로 경제발전 방향을 선회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대개발, 동북지역의 재건에 이어 중부지역의 도약 등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함.
- 특히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등장 이후 화합사회(和諧社會) 건설 목표 하에 최근에는 도농간 격차 완화를 위한 신농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경제 성과 및 전망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
경 제 성 장 륜	10.0	10.1	10.4	11.1	11.4
재 정 수 지/G D P	-2.4	-1.9	-1.6	-1.3	-0.6
소비자물가상승률	1.2	4.0	1.8	1.5	3.3

자료: IFS, GDF, EIU.

□ 수출과 투자에 의한 고도성장세 지속될 전망

- 공업화, 도시화, 신농촌 건설 등으로 고정자산투자가 지속되고 첨단기술제품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지난해 11.1%의 고도성장에 이어 금년에는 11.4% 수준의 성장 전망

□ 사회복지비용 지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대로 재정수지 적자폭 지속 개선 전망

- 금년에 내수 진작을 위해 교육, 의료 부문과 농촌 및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대되고 있지만, 수출증대 등으로 인한 세수확대로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1.3%에서 1% 이내로 크게 개선될 전망
 - 재정지출은 서부 대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인프라 확충, 기업구조조정, 농촌지역 생활 환경개선, 사회보장 확충 등 분야에 주로 투입

□ 식품가격 상승, 통화량 증가 등 압력으로 물가 상승 전망

- 원유, 철광석 등의 높은 원자재 가격과 풍부한 외환 유동성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식량가격 안정으로 물가가 1.5%를 기록하였으나, 금년에 식량 작황 부진과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정부 억제 목표치인 3%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45,875	68,659	160,818	249,866	357,100
경 상 수 지 / GDP	3.1	3.675	7.1	9.5	10.8
상 품 수 지	44,652	58,983	134,189	217,746	308,900
수 출	438,270	593,393	762,484	969,682	1,200,400
수 입	393,618	534,400	628,295	751,936	891,500
외 환 보 유 액	403,251	609,932	818,872	1,066,300	1,500,000
총 외 채 잔 액	208,700	247,500	281,045	323,000	357,100
총외채잔액/GDP	14.2	12.8	12.3	12.0	10.8
D. S. R.	5.0	3.4	3.1	2.9	2.8

□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과실 송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 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대폭 흑자 예상

-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06년 말 1조 663억 달러) 이자 수입 등에 의한 소득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2,499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3,5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 중국정부가 과잉 유동성해소와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자원 다소비와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적극 억제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공급과잉 물량을 해외 시장에서 해소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

※ 수출과 투자에 의한 고도성장 지속과 이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과잉 유동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음.



2. 경제구조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추진

- 고투입, 고비용의 양적 성장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국유기업 중심의 대형화를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와 기술경쟁력 향상의 산업 구조조정 추진
 - 자동차('04), 철강('05), 시멘트('06) 등 기간산업이면서 공급과잉인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마련하여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이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잠정 규정'('05), '산업구조조정 목록'('05), '생산능력 과잉업종의 구조조정 가속에 관한 통지'('06)를 제정하여 철강, 전해 알루미늄, 칼슘카바이드, 합금주철, 동, 코크스, 자동차, 시멘트, 석탄, 전력, 방직 분야의 노후 기술과 낙후 설비 폐기에 주안점을 둠.
 - 토지공급, 환경, 안전 등의 기준 강화를 통해 신규 진입 억제
- 에너지 수요와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노후 기술과 낙후 설비를 폐기하는 한편, 단위당 GDP 대비 에너지 소비율을 2005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 절감 추진
 - '신규 고정자산 투자의 엄격한 규제에 관한 통지'('06)에서 철강, 전해 알루미늄, 칼슘카바이드, 합금주철, 동, 코크스, 시멘트, 석탄, 전력 등 분야의 진입장벽 설치로 에너지 다소비 억제
 - '산업구조조정 목록'('05)을 '장려', '제한', '폐기'로 구분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분야는 '장려'에, 낙후 또는 노후 생산기술과 설비는 '폐기'에 포함시켜 구조조정
 - '청결생산 촉진법'('06)을 통해 철금, 비철금속, 전력, 석탄, 석유화학, 건축자재, 방직 등 오염 배출 축소
 - 특히, 단위당 에너지 소비율 절감 등을 지방정부 관료의 공적 평가에 반영
- 국유상업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활용하여 자본금을



확충하고 외국금융기관에 지분을 매각하는 한편, 상하이, 홍콩 등 증시에 상장

- 국유상업은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투자공사(中央匯金投資有限責任公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유상업은행 자본금 증자 실시. 중국농업은행과 농촌 신용협작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
- 2006년 말 현재 중국 전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7.1%이고,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9.2% 수준이며 동 비율 매년 개선 추세

□ 수출과 투자 증가에 의존한 성장 지속

- 경기과열 억제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고정자산 투자 증가 등으로 지난해 11.1%의 고도성장에 이어 금년에 11.4% 성장 전망
 - 지난해 전기기계, 통신설비, 비철금속, 철도 등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여 전체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대비 24% 증가하고, 전기전자, 기계류 등의 수출도 증가
 - 금년 상반기 비철금속, 기계설비, 농산물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고정자산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26.7% 증가하고 수출도 27.6% 증가
-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신농촌 건설과 도시화 추진 등으로 내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성과 미흡
 - 농촌지역의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의 점진적 확대

□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지속 증가

- 경제규모 확대에 비해 국제규범 준수 미흡으로 인해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마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율 부과,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세제 혜택) 지급, 인체에 유해한 물질 사용으로 수출제품 안전성 논란 확대 등
- 위안화의 저평가 논란 속에 점진적인 절상 지속
 - 2005년 7월 위안화의 2.1% 절상과 함께 환율 결정시스템을 미국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에서 복수통화 바스켓으로 전환한 관리변동 환율제 채택

- 2007년 5월 위안화 1일 환율 변동 폭을 $\pm 0.3\%$ 에서 $\pm 0.5\%$ 로 확대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물환, SWAP 거래 기관 확대

※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부분적인 성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 소비보다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며,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로 인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마찰도 지속될 전망

3. 경제정책

□ 균형발전 등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추진

- 지역간, 도농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그 동안 유지해왔던 우선발전론(先富論)에서 균형발전론(共富論)으로 국가 발전정책 전환('05)
 - 2000년 서부지역의 대개발, 2003년 동북지역의 재건에 이어 2005년 중부지역의 도약 관련 지역발전 정책 추진
 - 도시화 추진과 함께 신농촌 건설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2006년에 농업세 전면 폐지 및 농업소득 증대 일환으로 2007년 말 까지 농촌 지역의 80%까지 의료보험 확대 계획
- 민간부문의 발전을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규모를 종전 50만 위안에서 3만 위안(3,750달러)으로 대폭 축소

□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을 위한 거시경제 안정 추진

- 외화 유동성 증대로 인한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1년 만기 대출금리를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금년 들어 8월까지 네 차례 총 0.9% 포인트 인상하여 7.02%로 조정하는 한편, 예금금리도 같은 시기에 3.6%로 1.08% 포인트 인상. 또한 예금 유인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종전 20%에서 5%로 인하
- 은행지급준비율을 지난해 이래 총 여덟 차례 상향하여 12.0%로 조정
- 자본의 해외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로 외환 유동성 확대 적극 차단



- 기업의 외화 보유 한도 폐지 및 은행, 보험, 기금 등 20개 기관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 허용
- 해외투자 한도 폐지로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도

□ 자본재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산 기자재 생산 확대

- 주요 관급 공사에 자국 기술에 의해 생산한 기자재 사용 추진
 - 주요 관급 공사에 자국 기술에 의해 생산된 기자재 60% 이상 사용토록 하고, 자국 기술 개발 시제품에 대해 정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자국 기술 개발 생산제품으로 입찰 시에 가산점 부여

□ 고도성장의 후유증 극복,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및 개방 확대 대비 등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환경정비

- 고도성장의 후유증 탈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자원 다소비, 환경 오염 유발,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 환경오염 총량제와 허가제 실시로 인가범위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에 대해 비용 부과
-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상향 조정 등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 지방정부의 잦은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 노조를 통한 단체협상 및 노조 결성 요구, 장기고용 유도 및 해고 제한 등으로 노동 유연성 악화
 - 기능 인력이 전체 도시근로자의 33% 수준에 불과하여 임금 상승 압력이 높음.
- 외국자본의 M&A에 대해 중앙정부 인가를 받도록 규제 강화
 - 외국기업이 기간산업, 유명 상표, 전통명가 기업(老字號) 등의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이나 경제안전 위협과 관련된 M&A시에 상무부(商務部)에 보고
 - M&A 관련 독과점 규제를 위해 중국 내 자산 30억 위안, 인수기업의 매출액 15억 위안, 시장점유율 2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합병 후 시장 점유율 25%



일 경우 상무부의 인가

- 경제민족주의 정책 부활로 외국자본의 M&A 투자 위축 가능성
- 그러나 소득향상에 따른 시장 확대를 겨냥하여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첨단기술 산업 위주의 외국인투자 꾸준히 유입될 전망
-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의 유입은 지난해 631억 달러(금융부문 제외)로 전년의 603억 달러에 비해 4.5% 증가. 금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한 319억 달러 기록

□ 수출 상품구조 고도화를 위해 저부가가치제품 수출 억제 추진

- 자원과 노동집약적 제품 등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억제하는 반면, 첨단기술제품 수출 촉진
-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 시에 증치세 환급 비율 인하 및 석탄, 석유, 동 등 제품 수출 시에 관세 부과. 반면,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에는 증치세 환급 비율 확대
- 수출 주력 품목이 섬유제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가전을 포함한 전기전자, 기계류 등 자본집약적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
- 2006년 전기전자와 기계류의 수출 비중이 각각 23.5%, 19.3%로 전체 수출의 42.7%를 차지하는 반면, 섬유제품은 10%를 다소 상회하여 3위에 그침.
- ※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출상품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안정성

- 후진타오(胡錦濤) 중심 지도체제의 정치적 안정 강화



-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 중심의 지도체제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16기 4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 전임 당 총서기가 군사위 주석직에서 사임함으로써 후진타오의 권력기반이 강화됨.
-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수장에 후진타오 인맥을 등용하는 한편, 관료 부패척결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년 가을 공산당 제17기 전당대회에서 현행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9명) 중 일부가 향후 후진타오를 승계할 인물들로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후진타오 권력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인터넷 등 미디어 통제 강화로 정치적 소요 차단에 주력

- 후진타오가 전임 지도자에 비해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등 미디어에 대한 통제 강화
- 특히 금년 가을의 공산당 제17기 전당대회와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치 활동은 물론 미디어 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 움직임

2. 사회 안정성

□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실업 증가 등 사회 불안요인 잠재

- 국유기업 개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의 불만 증대가 지역간, 도농(都農)간 소득격차와 맞물려 사회불안 초래 가능성이 있음.
- 도시 지역 실업률이 4.1%이고, 2010년까지 중국 정부의 실업률 억제 목표가 5.0%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불안 가능성이 있음.
- 이 때문에 동북지역의 재건, 중부지역 도약, 농민 소득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으로 화합사회(和諧社會)의 건설을 추진



3. 소요 사태

□ 경작지 회수에 대한 보상 미흡, 환경악화 등과 관련한 잦은 시위 발생

- 최근 잦은 시위는 농민 경작지 사용권의 불합리한 회수, 관료의 부정부패, 환경 오염, 작업 안전 등에서 비롯되며, 이 중에서 정부의 경작지 회수의 보상 미흡과 관련된 시위가 가장 빈번

4. 국제 관계

□ 서방 및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속에 부분적인 긴장 국면 조성

- 미국과는 인권, 군사, 통상 등 문제와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유대 강화 움직임 등이 상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당분간 대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 대한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세제혜택 관련 WTO에 제소, 위안화 환율 왜곡 시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강화 등과 관련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
- 주변국가(아세안,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은 물론 아프리카와의 관계개선 지속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도모
- 중국이 2005년 3월 대만에 대한 '반국가분열법' 제정으로 대만 독립을 금지함으로써 대만과의 관계 악화.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긴장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음.
- 일본과의 역사 왜곡 및 조어도 문제 등으로 양국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본 아베정권 등장 이후 정치적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음.
 - ※ 내부적으로는 후진타오 중심의 지도체제 강화로 정치적 안정이,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가 계속될 전망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대외채무 절대 규모는 크나 관리 가능

- 2006년 말 총 외채잔액이 3,230억 달러로 절대 규모가 큰 편이지만, GDP 대비 12.0% 수준
 - 중장기외채와 단기외채가 각각 1,394억 달러(43.2%), 1,836억 달러(56.8%)로 단기외채가 전년 말 대비 1.3% 포인트 증가
 - 단기 자본의 유출·입 통제는 물론 단기외채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과 기업이 자 국내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해외에서 활용토록 유도
- D.S.R이 3% 이하로 낮기 때문에 단기 채무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 않음.

□ 대외지급 능력 양호

-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핫머니 유입 등으로 2006년 말 외환보유액이 전년 말 대비 2,474억 달러 증가한 1조 663억 달러로 외 화유동성 풍부
 - 금년 6월 말 외환보유액이 1조 3,326억 달러로 연말에는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FDI 실제 유입액은 지난해 631억 달러(금융부문 포함 6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
- 리스케줄링, 연체 경험 없음.



2. 국제금융시장의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전망 긍정적

- Moody's : A2(positive) → A1(stable, '07. 7)
- S&P : A1(stable) → A(positive, '07. 7)
- Fitch : A1(stable) → A(positive, '06. 9)
- I.C.R.G. : 41/140('06. 8) → 38/140('07. 6)
- Euromoney : 56/185('06. 9) → 56/185('07. 3)
- I.I. : 36/173('06. 9) → 33/174('07. 3)
- OECD : 2등급('06. 4) → 2등급('07. 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양호

- US EXIM : 전액 인수 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국제상업은행의 신용 공여 지속

-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국제상업은행의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중장기 대출 잔액이 469억 달러로 전년대비 71억 달러 증가
- ※ 풍부한 외환 유동성으로 대외지급 관련 리스크가 낮음.

V. 종합평가

- 정치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지역간, 도농간 소득 격차로 인한 잠재적 불안 요인이 부분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화합사회를 천명한 후진타오 중심의 지도체제가 정치적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경제적으로는 급격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균형발전에 의한 고정 자산 투자 증가 및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수출 증대로 이어져 고도 성장이 지속될 전망

【김 주 영】